

중년 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PREFERENCE AND AWARENESS ABOUT ELDERLY HOUSING AMONG MIDDLE AGED WOMEN

송 정 현* 홍 형 옥** 이 현 정***
Song Jung-Hyoun Hong Hyung-Ock Lee Hyun-Jeong

Abstrac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about the preference and awareness about elderly housing among middle aged wom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people between 30~60years old middle aged women living in the city of Seoul from October, 1, 2010 to October, 19, 2010 and 105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o observe the preference differentiation of elderly housing, by the SPSS Win 18.0 program, χ^2 -test, t-test and ANOVA were utili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ings. First, respondents preferred middle scale and single-detached dwelling in suburban areas. Second, for the reason of considering elderly housing,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nsider the elderly housing as a safe and comfortable place. Third, they preferred that elderly housing should be supplied by local authority or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need to provide elderly housing which can improve the older people's residential welfare in the future aged society and develop a model of the elderly housing which reflects the preference of the middle aged women.

Keywords: elderly housing, preference, awareness

주요어: 노인복지주택, 선호도, 인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519만3000명으로 총 인구의 10.7%를 차지하여,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인구로 나타났다. 향후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조현태, 2009)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노인문제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것은 전체 노인의 63%가 도시에 거주 하고 있다는 점과 남녀 노인간의 평균수명 차이로 인해 노인인구 성별 구성비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박정희, 2007)이다. 남성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노인의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이 높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노인의 인구비중이 남성노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으로 갈수록 홀로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기간은 평균 10년 정도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앞으로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에 있어서 고령의 여성 독신 노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노인복지주택의 실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중년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지, 그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노후대비에 따른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중년 여성들의 특성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 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에 적절한 도구를 개발한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해 독립변수와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에 따라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자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조사 대상자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의 개념

중년 여성이란 인생주기의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중년기에 있는 여성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

* 준회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부생

** 정회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이며 신체적 관점에서는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30~60세의 중년기에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년기 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으로, 중년 여성들은 남성들이 겪지 않는 폐경을 통해 남성 유병율에 비해 만성 퇴행적 질병구조와 노화도가 더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치료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병은 줄어들고 사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천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같은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신체적 특성(박정희, 2007)을 갖고 있다.

심리적으로, 중년 여성들은 정년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 주로 역할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를 서서히 체감함에 따라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 중년 여성들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삶의 회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삶의 목표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한국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함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가족 결속력 약화에 의한 가족해체 및 사고, 질병 등에 의한 남성의 사망률 증가 등으로 홀로 노후를 맞아야 되는 중년 여성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 밖에(김인숙, 2004) 없다.

경제적으로, 중년여성들은 남성중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단절현상이 심하고 결혼, 가사, 보육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게 비해 현저히 낮으며 우리사회의 유교적인 성 역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더라도 낮은 지위와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들에 비하여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소수의 여성들만이 자신의 수입을 갖고 있고 대부분은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므로 남성의 경제적인 문제는 곧 여성의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특성(김성희, 1996)이 있다.

사회적으로, 중년여성들은 현대사회의 가족생활의 구조·기능상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존의 남존여비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적인 위계구조가 점차 붕괴되고 여성의 예측적 지위를 강화해 주던 유교문화의 영향이 감퇴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점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년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의한 위기감을 경험하게 되고 직업적 성취에 몰두하는 남편과 독립욕구가 강해지는 자녀와의 사이에서 고독감을 느끼며,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 속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주부생활에 회의(이복희, 2006)를 갖기 쉽다.

2. 노인복지주택의 개념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즉, 노인들은 위해 특별히 계획된 주택으로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시설이다.

표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이용)대상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출처 : 김경숙(2010). p.30-31에서 재인용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로서,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0 ~ 60세의 여성 120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전 지역의 분포구성을 보이는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조사시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19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20부 중에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105부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은 박영옥(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김완래(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재구성해 사용했다. 노인복지주택의 편의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필요도에 관한 측정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써, 매우 불만족(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의 응답을 나타내며 이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875$ 와 $.933$ 이었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 ANOVA 등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응답자 105명 전부 여성이다. 나이는 40대가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31.4%, 50대가 14.3% 순으로 나타났고 60대는 1명이 있었다.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해서 대졸이 6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졸이 23.8%, 대학원졸이 9.5%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은 주부의 비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의 의견이 21.9%, 전문직이 20.0%의 비율을 보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500만원 사이가 3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25.7%, 500만원 이상이 22.9%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70.5%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고 28.6%가 미혼이었다.

2) 주거 특성

조사 대상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3.3%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 13.3%, 단독 주택 11.4% 순이었다. 거주 형태는 72.4%가 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세 19.0%, 월세의 응답자도 4.8% 있었다. 거주 기간은 5년 이하가 50.5%로 가장 많았고, 10년~20년 사이가 25.7%, 5년~10년 사이가 19.0%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도 4.8% 있었다. 주택 규모는 2009년 4월 1일 이후 적용된 새로운 주택공급면적 표기 방식에 따라서 대형 주택 거주가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소형 26.7%, 중형 20.0% 순으로 나타났다.

2. 노후준비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58.1%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고, 노후준비의 시작시기는 30세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응답이, 월평균 노후준비자금은 10~30만원 사이를, 노후준비방법으로는 개인연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태도 n=105

구분	분류	N(%)
노후준비여부	예	44 (41.9)
	아니오	61 (58.1)
	소계	105(100.0)
노후준비 시작시기	20세부터	18 (17.1)
	30세부터	40 (38.1)

	40세부터	34 (32.4)
	50세 이상부터	14 (12.4)
	소 계	105(100.0)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0~10만원	22 (21.0)
	10~30만원	37 (35.2)
	30~50만원	17 (16.2)
	50~100만원	19 (18.1)
	100만원 이상	10 (9.5)
	소 계	105(100.0)

3.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의 68%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 50%의 응답자들이 노인복지주택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고, 약 82%의 응답자들이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의사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노인복지주택의 정의에 대한 인식에서는 실버타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이 가장 높게(37.1%)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인지정도 및 관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인지정도와 관심도에, 나이별로는 관심도와 필요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거 특성에 따라서는 월세에서 자가소유로 갈수록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현재의 주거상태에 만족할수록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다. 노후준비에 따라서는 20세부터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관심도와 필요성이 더 높았고, 입주의사에 있어서는 30세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40%) 높았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53%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6가지의 하위 문항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3가지만 순서대로 선택하는 순위형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처럼 1순위 응답에는 1순위 빈도수에다 3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2순위응답에는 2순위빈도수에다 200%의 가중치를, 그리고 3순위 응답에는 3순위빈도수에다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에 대해, 1순위로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2순위로 '노인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면 외롭지 않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3순위로 '건강 약화 시 적절한 보호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각각 <표 3>과 같이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중년여성들은 노인복지주택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그리고 외롭지 않은 생활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 노인복지주택 입주이유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입주이유	1순위빈도*3	2순위빈도*2	3순위빈도*1	총합
편하고안전한생활	108	16	5	129*
생활비가저렴	0	12	4	16
가사활동탈피	6	6	3	15
외로움탈피	24	26	18	68*
적절한보호와의료	21	26	19	66*
규칙적인생활을위해	6	20	4	30

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

조사 대상자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장소에 대해서는 도시근교형(37.1%)을 선호했고 그 이유로는 복지 및 의료시설을 가장 크게 고려(38.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의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단독주택형(34.3%)을, 생활공간 규모에 대해서는 60~85㎡ 미만의 중형규모를 선호(41.9%)했다. 또 입주방식으로는 전세임대형을 가장 선호(31.4%)했고, 한 달 생활비로는 30~50만원 사이(33.3%)를, 운영사업 주체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선호(56.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는 부부끼리 사는 것을 가장 선호(73.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노인복지주택의 편의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필요성
노인복지주택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각회전 방법 가운데 베리맥스(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했다.

<표 4>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의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위 차원의 요인은 항목들의 성격에 따라 요인1은 개인 이용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공동생활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생활환경지원으로 명명하였다. 초기 고유값의 누적 분산이 약 65%로 50%가 넘기 때문에 요인분석 할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노인복지주택의 편의시설 필요도 요인분석

요인	변수	요인 부하값	고유값	설명 변량(%)	누적 변량(%)
요인 1 (개인 이용 성향)	구매시설	.709	5.238	43.647	43.637
	식당, 휴게실	.672			
	오락시설	.605			
	체육시설	.599			
	종교시설	.355			
요인 2 (공동 생활)	문화시설	.819	1.479	12.322	55.968
	휴양시설	.757			
	공동 작업실	.572			
	노인정	.481			
	병원	.442			

요인 3 (생활환경 지원)	차량시설	.819	1.075	8.958	64.926
	녹지시설	.642			

노인복지주택의 편의시설 필요도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요인 1 ‘개인이용성향’에서는 구매시설, 요인 2 ‘공동생활’에서는 병원, 요인 3 ‘생활환경지원’에서는 녹지시설에 대해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이라고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및 적절한 보호와 의료를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프로그램 필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5>에서처럼 요인 1은 ‘여가레저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생활지원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의료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초기 고유값의 누적 분산이 약 74%로 이 3가지 요인으로 74%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프로그램 필요도 요인분석

요인	변수	고유값	요인 부하값	설명변량 (%)	누적변량 (%)
요인 1 (여가 레저 서비스)	노인교실	7.621	.789	54.435	54.435
	봉사활동		.683		
	전시회		.675		
	사회교육		.675		
	스포츠		.588		
요인 2 (생활 지원 서비스)	배달서비스	1.532	.817	10.942	65.378
	대행서비스		.781		
	목욕서비스		.667		
	가사지원		.571		
	긴급호출		.549		
요인 3 (의료 서비스)	응급의료	1.205	.779	8.610	73.988
	간호진료		.744		
	재활서비스		.665		
	검진상담		.618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프로그램 필요도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요인 1 ‘여가레저서비스’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요인 2 ‘생활지원서비스’에서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요인 3 ‘의료서비스’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해 노인복지주택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조사대상자들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외로움탈피, 적절한 보호와 의료 행위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선호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직업별, 결혼상태 별로 선호하는 노인복지주택 지역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직업별로 선호하는 입주방식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에서의 운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게 되고 주거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주거만족도가 낮을수록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사업주체로 정부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선호도는 주택규모별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현재 주거에 만족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사업주체로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현재 자신의 주거 수준에 만족할수록 정부의 노인 관련 주택정책이나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준비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은 단독주택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47.7%)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집단은 아파트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39.3%)으로 나타나서 노후준비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V. 결론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 대상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며 주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양로원 또는 요양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도 존재했다. 실제로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입주비만도 1억원이 넘는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고 양로원과 요양원은 병들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통해 예비여성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친근하며 호의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주요 정보입수경로가 TV, 인터넷, 신문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인복지주택의 개념 정립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노후 준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30세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5.2%나 되었지만 실제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1.9%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에서조차 적용제외자로 구분되어 있는 전업주부들의 열악한 노후준비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들은 20, 30대의 이른 나이에서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자녀교육 등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을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의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약80%가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는 절반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주거부 이유로 조사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과 동거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소유로 갈수록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높은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의사에 있어 조사 대상자의 현재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만족도가 떨어질 때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지만 정작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의사는 현재의 주거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주택소유자들, 그리고 주거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막상 입주할 의사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정책 수립 및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이 더 높은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년기 여성들은 도시근교에 위치하며, 중형 규모의 단독주택형으로써 전세임대 형식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서 부부끼리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은 편의시설로서 슈퍼마켓 등의 구매시설 및 병원, 녹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스포츠 프로그램 및 가사지원 서비스, 응급의료 등의 서비스프로그램이 잘 실행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주택규모 등의 내적 환경과 주변 시설 등의 외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주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사업주체로 정부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의 개발 및 정책 수립에 앞서 노인복지주택의 실질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과의 관계 및 신뢰형성에 무엇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경숙(2010).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인복지 주택 이용의사 결정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성희(1996).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관래(2008).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 선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한나(2006). 중년층의 노후대비수준에 따른 주거선호의식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오동숙(2002). 중년여성의 사회봉사 활동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의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이복희(2006). 중년기 여성의 노후 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 경기인지역 사찰의 불교 신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조현태(2009).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주택 선호도에 관한 연구: 면목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전상미(2009).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